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경주의 상징, 신라 고총



1 개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지상 또는 구덩이를 판 지하에 상자 모양의 덧널[木槨]을 놓고 그 위에 냇돌로 돌무지 봉분을 만든 다음, 다시 그 위에 진흙 등을 바르고 흙을 판축 방식으로 쌓아 올려 거대한 봉분을 만든 무덤 양식이다. 돌무지 덧널 무덤 혹은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목곽적석총(木槨積石塚)·적석봉토분(積石封土墳)이라고 하며 규모가 거대하여 고총(高塚)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2 구조와 형태

신라 전기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은 지하에 무덤 구덩이를 파고 상자 모양의 덧널을 짠 다음 냇돌로 둥글게 쌓은 뒤 다시 봉토를 덮은 형태이다.

1921년 금관총(金冠塚)이 처음 발굴되고 이어서 금령총(金鈴塚), 서봉총(瑞鳳塚), 식리총(飾履塚) 등이 발굴되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구체적인 특징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발굴된 무덤들은 대체로 6세기 전반 무렵에 축조된 왕릉급 무덤으로서 화려한 유물들이 대량 출토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천마총(天馬

塚), 황남대총(皇南大塚)과 같은 왕릉급 무덤이 추가로 발굴되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입체적인 구조가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무덤의 덧널 형식과 무덤의 형태로 나누어 분류해 볼 수 있다. 무덤의 ‘덧널 형식’이란 덧널 내부구조의 형식을 의미하고 ‘무덤의 형태’는 하나의 묘역 안에 덧널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된다. 덧널 형식은 딸린 덧널의 유무와 무덤 덧널의 수 등 내부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이에 따라 외널묘와 여러널묘로 분류되는데, 연구 초기에는 이 둘이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여러널묘에는 명칭 그대로 여러널묘와 집단묘, 그리고 부부합장을 한 표주박형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위 신분의 묘지로 보이며 상위 신분은 외널묘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외널묘에는 황남동 제109호분과 천마총, 그리고 호우총(壺紆塚) 등이 있다.

각각 고분의 구조는 모두 매장 주체 시설이 구덩식덧널로 되어 있고 돌무지 시설과 봉토가 있다거나 둘레돌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고분마다 조영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또한 지면을 기준으로 덧널의 위치에 따라 지상식·반지하식·지하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지하식이며, 추가장(追加葬)이 안 되는 홀무덤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딸린 덧널을 가진 나무 덧널 무덤은 경주 조양동(朝陽洞) 고분군 중에서 한 예가 발견되며, 경주 정래동(政來洞) 고분에서도 나타난다.

또 덧널에 따라서는 돌무지 안 덧널의 유무에 따라 돌무지 덧널식과 단순 돌무지식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돌무지 덧널식 중에서도 덧널이 1개인 것은 외덧널식·독곽식(獨槨式)·바깥덧널식, 2개인 것은 겹덧널식·양곽식(兩槨式)·쌍곽식(雙槨式), 3개 이상인 것은 여러덧널식이라고 한다. 외덧널식은 물론 겹덧널식이나 여러덧널식에 있어서도 고분의 구조상 돌방무덤과 같은 합장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연히 홀무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덧널식의 경우에는 그만큼 꺼묻거리를 넣는 딸린덧널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

미추왕릉으로 전해지고 있는 황오동 106호분 부근에 밀집된 단순 돌무지식 고분들은 대개 규모가 작고 여러 덧널이 서로 겹하여 조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두 지하에 협소하게 축조되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도 덧널을 설치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형식은 경주 고분 지대의 중심지에서 대체로 동쪽에 몰려 있는 편이다.

돌무지 덧널 무덤에 사용하는 돌은 보통 냇돌을 사용하는데 평면적으로는 장방형, 입체적으로는 윗부분이 납작한 절두방추형(截頭方錐形)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덧널이 썩어 내려앉기 때문에 돌무지도 덧널 윗부분에 무너져 내려 돌무지 전체모양이 마치 낙타 등처럼 변한다. 돌무지 바깥으로는 점토를 두껍게 발라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였다.

고분의 외부형태는 원형의 홀무덤을 기본으로 하지만, 합장 의도에 따라 2개 이상의 원분을 연결해놓은 형태인 표형분(瓢形墳)·쌍원분(雙圓墳)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이 밖에 고분에 따라서는 둘레돌을 설치한 것도 있다. 재료로는 주로 냇돌을 이용했지만, 간혹 막돌을 쓰기도 하였다. 둘레돌은 봉토를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묘역의 표시 내지 경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고구려식 돌

무지무덤과 구별되는 것은 봉토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돌무지 시설이 상당히 크게 조성되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봉토도 대규모여서 신라의 고분은 고구려나 백제의 것보다 대형화될 수 있었다.

3 돌무지 덧널 무덤의 기원 문제

돌무지 덧널 무덤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전파론적인 입장에서는 북방 기마민족의 이동으로 완성된 형태가 출현했다고 보는데, 시베리아 쿠르간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자체 발생설은 나무 덧널 무덤의 전통 위에서 돌무지무덤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청동기시대 고인돌의 돌무지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고구려 돌무지무덤의 돌무지 개념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그런데 돌무지 덧널 무덤 가운데 주목되는 점이 있다. 대체로 평지 무덤이면서 흙무덤이 많은 돌무지 덧널 무덤 가운데 딸린덧널을 가진 나무 덧널 무덤이 구릉에 조성된 무덤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딸린덧널을 가진 나무 덧널 무덤은 경주 조양동(朝陽洞) 고분군 중에서 한 예가 발견되는데, 경주 정래동(政來洞) 고분에서도 나타난다.

정래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보고가 없어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으나, 3기가 모두 30m 높이의 언덕 정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와질토기(瓦質土器)가 아직 남아 있고, 철제무기는 있지만, 금동제품이 없다는 점에서 경주 시내의 고분보다 앞서는 4세기 초에 만들어진 고분이라고 생각된다. 정래동 고분군 1호분 같은 원구(圓丘) 위 으뜸덧널·딸린덧널식 나무덧널무덤을 평지로 내려놓고 봉토 안에 돌을 덮으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완성된다고 하겠다.

정래동과 같은 구릉 위 으뜸덧널·딸린덧널식 봉토분은 부산 복천동(福泉洞) 학소대(鶴巢臺)와 경산 임당동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양동 고분의 뒤를 이어 낙동강 동안 지방의 성읍국가(城邑國家) 지배자의 무덤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형식의 무덤이 다시 경주 지역에서 토착화한 것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경주에서 봉토 내부에 돌무지를 씌운 것은 무덤이 언덕 위 무덤에서 평지 무덤으로 바뀌고 또 소형무덤에서 대형무덤으로 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무 덧널을 보존·연장하고, 한편으로는 봉토의 거대화화를 위해 고인돌과 같은 돌무지 전통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완성된 형태로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대형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대부분 5세기 후반에 집중되며,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발생기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몇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경주 황남대총과 같은 대형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울산 지역 중산리의 발굴조사 결과 나무 덧널 무덤에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의 자연적인 변화가 증명되었다. 결국 돌무지 덧널 무덤은 4세기 전반에 일어나서 6세기 전반에 소멸한 묘제로서 마립간 시기 신라 지배 세력의 필요에 의해 성립된 신라의 독특한 묘제라고 할 수 있다.

4 돌무지 덧널 무덤의 출현 의미와 의의

돌무지 덧널 무덤의 축조 시기는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신라 역사에서 최고 지배자가 마립간으로 불리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 마립간 시기는 김씨 세습왕조의 확립기이기도 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주변 소국의 병합단계인 이사금 시대를 거쳐 장자 세습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집권적인 왕권이 확립되어가는 마립간 시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묘제이자 상징적인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마립간 시기에 축조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지배계층의 필요에 의해 수용되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상과 같은 복잡하고도 특이한 구조 때문에 도굴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유형의 고분들에 비해 꺼묻거리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금관총을 비롯해 경주분지 내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순금제 금관이나 각종 귀금속 장신구 등 풍부한 양의 꺼묻거리가 출토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구조 때문이다.

종래의 학자들은 돌무지 봉토분이 덧널·돌무지·봉토·둘레돌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흔히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묘제 연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덧널이 경주 황오동 고분군 중에는 없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돌무지 봉토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4~6세기의 대표적인 묘제로서 신라의 국력이 크게 신장하는 시기에 유행하였으며, 그 거대한 규모와 풍부한 꺼묻거리 등은 이 묘제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지목할 수 있다.